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6월 고용 호조, 감세안 통과 등으로 신고가 경신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3일(목) S&P500과 나스닥은 휴장을 앞둔 거래 감소, 금리 및 달러 상승에도, 6월 비농업 고용 호조, 감세안 상원 최종 통과(트럼프 서명만 남음) 등에 힘입어 신고가를 경신(다우 +0.8%, S&P500 +0.8%, 나스닥 +1.0%)

현재 시장은 데이터를 놓고 "Good is good, Bad is bad"로 반응하는 국면인 가운데, 6월 고용지표가 표면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 6월 비농업 신규고용(14.7만 vs 컨센 11.1만), 실업률(4.1% vs 컨센 4.3%) 등 메이저 항목들이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 6월의 양호한 고용 상황은 연준의 7월 금리 동결 전망을 강화시켰으며, 연내 3회 인하로 형성된 컨센서스도 2회 인하로 옮겨가게 만든 상황

다만, 대부분이 정부 고용(5월 0.7만 → 6월 7.3만)에서 늘어났으며, 민간 고용(5월 13.7만 → 6월 7.4만)은 급감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 이는 관세 불확실성이 민간 고용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추후 미 CPI 및 소매판매 등 여타 지표에서도 관세 충격이 반영될 수 있음을 시사. 당사는 기업의 관세 비용 감당 능력, 감세안 통과 이후 중기적인 성장 모멘텀 등으로 관세 발 침체 리스크가 낮다는 입장. 하지만 7월 중 주요 실물 지표 확인 과정에서 시장참여자들간 의견 충돌이 일시적으로 주가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은 대비해 놓을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미-베트남 관세 협상 체결, 국내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소식 등에 힘입어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소외 업종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이면서 1%대 상승 마감(코스피 +1.3%, 코스닥 +1.4%).

금일에도 미국 고용 호조, 감세안 통과 등 미국발 훈풍, 상법 개정안 통과 모멘텀 잔존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한 이후 장중 업종간 순환매(전일 급등 업종 vs 전일 낙폭과대 업종) 장세를 전개해나갈 것으로 예상.

지난 6월 한달 동안 역대급 랠리를 펼쳤던 국내 증시는 7월에도 상법 개정안 통과, 관세 불확실성 일부 완화 등에 힘입어 지수 상방 모멘텀은 유지하고 있는 모습. 그렇지만 업종 단에서는 증시의 체감 상 난이도를 높이고 있는 실정. 주도 업종(조선, 방산, 원전 등)과 소외 업종 간 수익률이 빠르기 역전됐기 때문.

일례로, 6월 기계(방산, 원전, 전력기기, +41.1%), 소프트웨어(+30.5%), 유틸리티(+27.4%) 등이 코스피 26개 업종 내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또 다른 주도주인 조선은 6월 +7.1%로 지난달 수익률이 훌륭하지는 않았으나, 4월 +27.8%, 5월 +9.9% 등 4월 이후 누적 성과로는 수익률 최상위권). 이에 반해 건강관리(-0.3%), 운송(+2.2%), 철강(+4.0%), 화학(+8.1%) 등은 수익률 하위권을 차지하면서 코스피(+13.9%)의 6월 성과에도 못 미치는 소외업종, 수급 빈집으로 인식됐던 상황.

그렇지만 7월 이후(1~3일) 철강(+17.1%), 화학(+9.7%), 건강관리(+5.8%), 운송(+4.5%) 등이 수익률 최상위권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온 모습. 반면, 기계(-6.1%), 조선(-6.9%), 유틸리티(-6.0%), 소프트웨어(-1.4%) 등 6월 수익률 상위권에 있던 업종들은 최하위권으로 밀려나면서 코스피(+1.5%)의 7월 성과에 뒤쳐진 실정. 시가총액

비중이 가장 큰 반도체 업종 내에서 삼성전자(6월 +6.4% vs 7월 +6.7%)와 SK하이닉스(6월 +42.8% vs 7월 -4.6%) 간 수익률 희비가 급격하게 엇갈린 것도 마찬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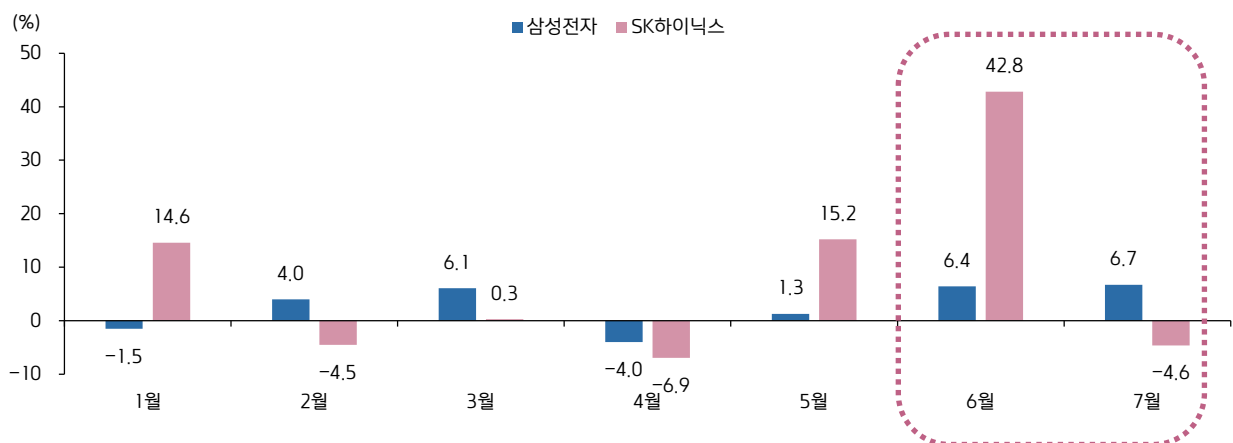
수급 측면에서도 국내 증시의 주포 역할을 하고 있는 7월 외국인인 반도체(+4,770억원), 철강(+1,210억원), 화학(+1,080억원) 등 소외 업종에서 순매수 상위률, 기계(-2,930억원), 소프트웨어(-1,930억원), 조선(-918억원)에서 순매도 하위를 기록한 실정.

이처럼 7월 이후 “기존 주도주들의 후퇴 + 소외주들의 약진” 현상은 향후 업종 간 비중 조절의 고민을 유발 중. 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 소외주이자 관세 피해주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주도주들의 비중은 빠르게 줄여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 그에 해당.

일단 지수 상방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기에 최근과 같은 소외업종의 키 맞추기 장세가 또 다시 나타날 가능성 상존. 다만, 트럼프의 상호관세 불확실성 잔존(8일 유예 만료), 차주 삼성전자 실적(8일 예정), 미국 6월 CPI(15일) 등을 관세, 실적, 매크로 이벤트를 중립 이상으로 소화해야 지금의 시장 색깔(소외주 장세)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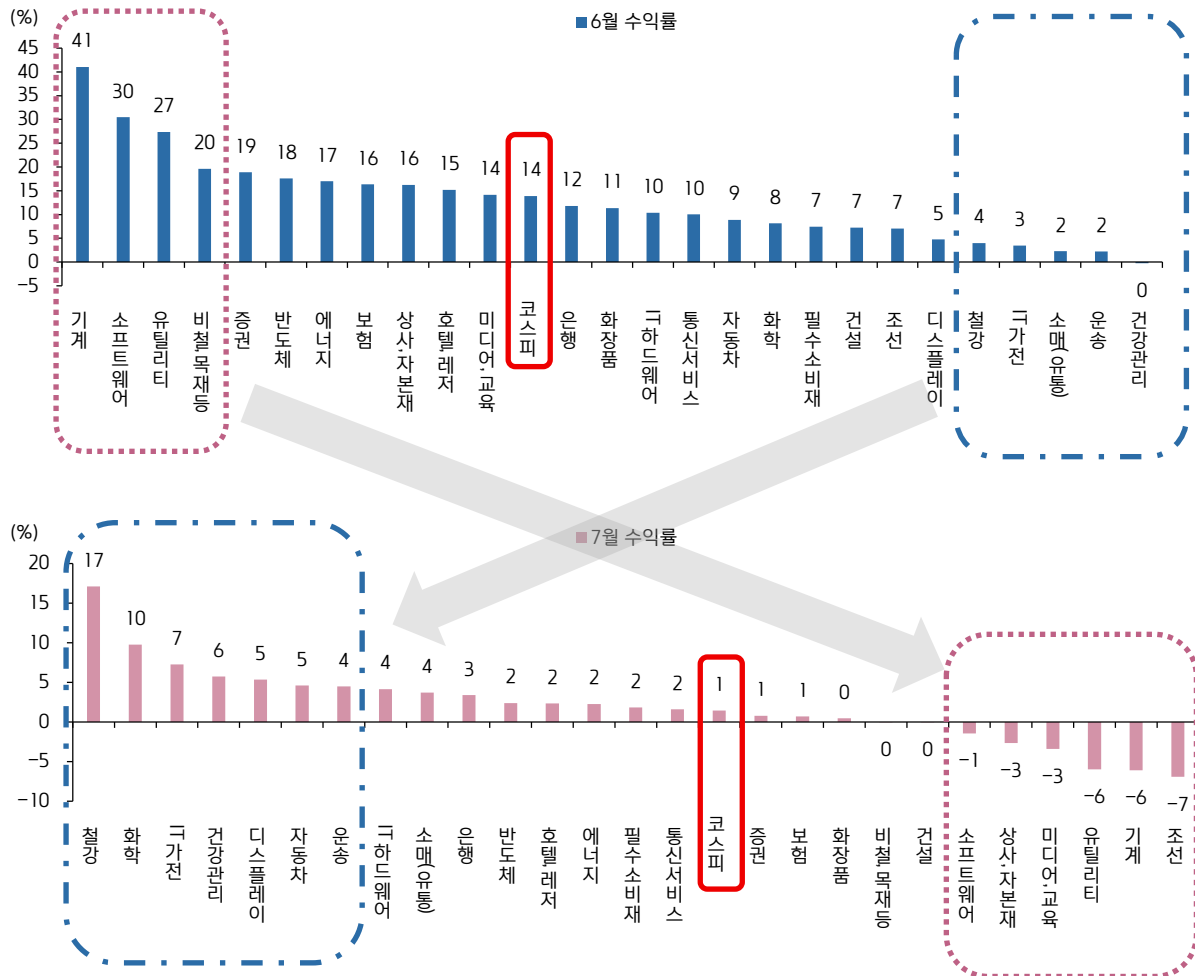
캘린더 상 일정을 봐도 이를 한꺼번에 소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간중간 주도업종과 소외업종간 순환매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 “주도주의 이익 모멘텀 양호 vs 소외주의 이익 모멘텀 부진” 구도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 이를 감안 시, 최근 조정으로 수급이 취약해진 주도주 비중을 월 중 내내 시장 중립 이하로 가져가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전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월간 수익률 비교: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 급격한 수익률 역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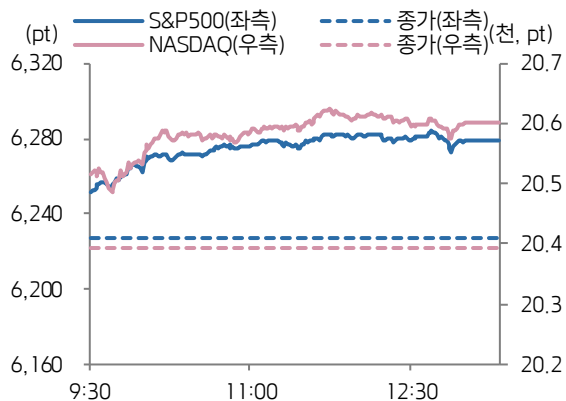
자료: Quantwise, 키움증권

코스피와 26개 업종의 6월 수익률과 7월 수익률(~3일까지) 비교: 6월 주도업종과 소외업종 간 수익률 역전 현상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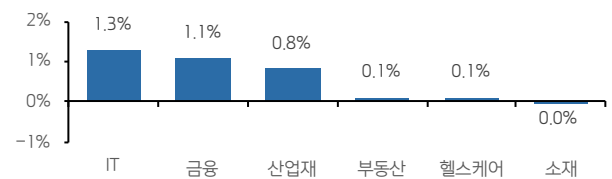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키움증권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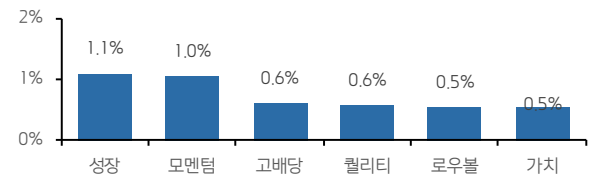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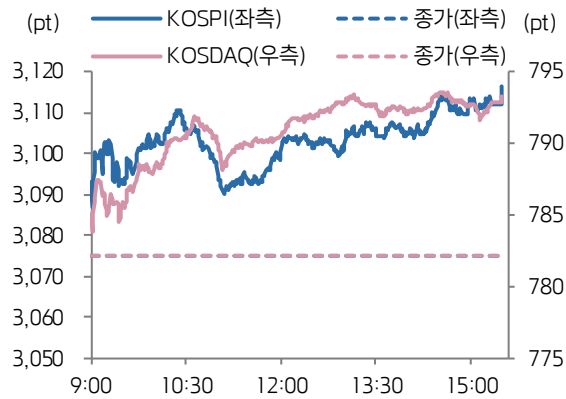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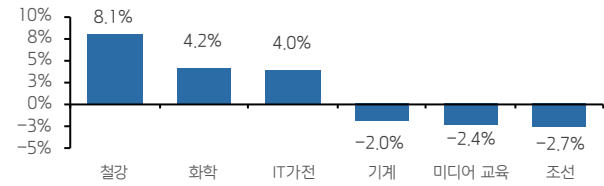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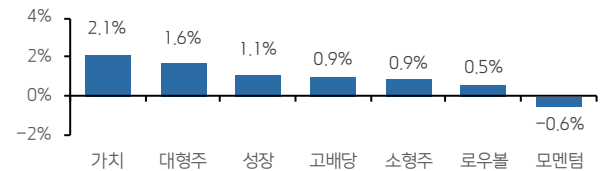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13.55	+0.52%	-14.52%	GM	52.89	+0.4%	-0.14%
마이크로소프트	498.84	+1.58%	+18.8%	일라이릴리	780.67	+0.18%	+1.5%
알파벳	179.53	+0.5%	-4.94%	월마트	98.36	+0.77%	+9.43%
메타	719.01	+0.76%	+23%	JP모건	296.00	+1.86%	+25.49%
아마존	223.41	+1.59%	+1.83%	엑손모빌	112.20	+1.04%	+6.21%
테슬라	315.35	-0.1%	-21.91%	세브론	148.37	+0.26%	+4.83%
엔비디아	159.34	+1.33%	+18.67%	제너럴일렉트릭	98.36	+0.8%	+9.4%
브로드컴	275.18	+1.96%	+19.33%	캐터필러	397.86	-0.14%	+10.61%
AMD	137.91	-0.44%	+14.17%	보잉	215.92	+1.83%	+21.99%
마이크론	122.29	+0.45%	+45.5%	넥스트에라	73.88	+1.2%	+4.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3,116.27	+1.34%	+29.87%	USD/KRW	1,365.50	+0.74%	-7.25%
코스피200	420.94	+1.57%	+32.45%	달러 지수	97.12	+0.36%	-10.48%
코스닥	793.33	+1.43%	+16.98%	EUR/USD	1.18	-0.36%	+13.55%
코스닥150	1,298.35	+1.94%	+14.92%	USD/CNH	7.17	+0.13%	-2.28%
S&P500	6,279.35	+0.83%	+6.76%	USD/JPY	144.93	+0.88%	-7.81%
NASDAQ	20,601.10	+1.02%	+6.68%	채권시장			
다우	44,828.53	+0.77%	+5.37%	가격	DTD(bp)	YTD(bp)	
VIX	16.38	-1.56%	-5.59%	국고채 3년	2.445	-4.5bp	-15bp
러셀2000	2,249.04	+1.02%	+0.85%	국고채 10년	2.810	-2.5bp	-6.1bp
필라. 반도체	5,647.12	+0.64%	+13.4%	미국 국채 2년	3.880	+9.5bp	-36.2bp
다우 운송	16,046.83	+0.18%	+0.95%	미국 국채 10년	4.346	+6.9bp	-22.3bp
상해종합	3,461.15	+0.18%	+3.26%	미국 국채 30년	4.861	+6bp	+8bp
항생 H	8,648.44	-0.88%	+18.64%	독일 국채 10년	2.615	-4.9bp	+24.8bp
인도 SENSEX	83,239.47	-0.2%	+6.53%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5,343.15	+0.46%	+9.13%	WTI	67.00	-0.67%	-3.58%
MSCI 전세계 지수	926.48	+0.65%	+10.12%	브렌트유	68.80	-0.45%	-7.82%
MSCI DM 지수	4,063.04	+0.66%	+9.58%	금	3,342.90	-0.5%	+23.04%
MSCI EM 지수	1,236.97	+0.55%	+15.02%	은	36.78	+0.98%	+25.79%
MSCI 한국 ETF	72.70	+1.04%	+42.86%	구리	509.70	-1.01%	+26.59%
디지털화폐				BDI	1,443.00	-1.03%	+44.73%
비트코인	109,985.51	+0.71%	+17.36%	옥수수	420.25	+0.54%	-5.03%
이더리움	2,600.28	+0.32%	-22.3%	밀	556.75	-1.29%	-4.17%
				대두	1,049.25	+0.12%	+2.34%
				커피	289.60	-0.55%	-4.1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7월 3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